

제 1 교시

2017-2020학년도 평가원 문법 문제지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의어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말한다. 다의어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 의미를 중심 의미라고 하고,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한다. 중심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보다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며 사용 빈도가 높다. 그러면 다의어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첫째,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 살을 먹다’는 가능하지만 ‘한 살이 먹히다’나 ‘한 살을 먹이다’는 어법에 맞지 않는다. 또한 ‘손’이 ‘노동력’의 의미로 쓰일 때는 ‘부족하다, 남다’ 등 몇 개의 용언과만 함께 쓰여 중심 의미로 쓰일 때보다 결합하는 용언의 수가 적다.

둘째, 주변 의미는 기존의 의미가 확장되어 생긴 것으로서, 새로 생긴 의미는 기존의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손’의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손이 부족하다’, ‘손에 넣다’ 처럼 각각 ‘노동력’, ‘권한이나 범위’로 쓰이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 다의어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

줄

① 새끼 따위와 같이 무엇을 묶거나 동이는 데에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 예) 줄로 묶었다.

② 길이로 죽 벌이거나 늘어 있는 것. 예) 아이들이 줄을 섰다.

③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나 인연. 예) 내 친구는 그쪽 사람들과 줄이 닿는다.

예를 들어 ‘줄’의 중심 의미는 위의 ①인데 길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 유사하여 ②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연결이라는 속성이나 기능이 유사하여 ③의 뜻도 지니게 되었다. 이때 ②와 ③은 ‘줄’의 주변 의미이다.

그런데 ① 다의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앞’은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이 중심 의미인데 ‘앞 세대의 입장’, ‘앞으로 다가올 일’에서는 각각 ‘이미 지나간 시간’과 ‘장차 올 시간’을 가리킨다. 이것은 시간의 축에서 과거나 미래 중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에 따른 차이로서 이들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은 유지된다.

11. 윗글을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부분의 아이들이 ‘별’의 의미 중 ‘군인의 계급장’이라는 의미보다 ‘천체의 일부’라는 의미를 먼저 배우겠군.
 - ② ‘앉다’의 의미 중 ‘착석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가 ‘요직에 앉다’처럼 ‘직위나 자리를 차지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보다 더 높겠군.
 - ③ ‘결론에 이르다’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에서 ‘이르다’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으니, 이 두 의미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관계로 볼 수 없겠군.
 - ④ ‘뺨이를 돌리다’는 어법에 맞는데 ‘침이 생기다’라는 의미의 ‘돌다’는 ‘군침을 돌리다’로 쓰이지 않으니, ‘군침이 돌다’의 ‘돌다’는 주변 의미로 사용된 것이겠군.
 - ⑤ 사람의 감각 기관을 뜻하는 ‘눈’의 의미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의 도수를 올렸다’에서의 ‘눈’의 의미로 확장되었으니, ‘눈’의 확장된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겠군.

12.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하여 ㉠의 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영희: 자꾸 말해 미안한데 모뎀 발표 자료 좀 줄래?
 민수: 너 빛쟁이 같다. 나한테 자료 맡겨 놓은 거 같네.
 영희: 이틀 뒤에 발표 사전 모임이라고 금방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지금 또 왔어. 근데 빛쟁이라니, 내가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민수: 아니, 꼭 빌려 준 돈 받으러 온 사람 같다고. 자료 여기 있어. 가현이랑 도서관에 같이 가자. 아까 출발했다니까 금방 올 거야.
 영희: 그래. 발표 끝난 뒤에 다 같이 밥 먹자.

- ① 빛쟁이
- ② 빛쟁이, 금방
- ③ 뒤, 돈
- ④ 뒤, 금방, 돈
- ⑤ 빛쟁이, 뒤, 금방

13.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음절의 유형은 크게 분류하면 ‘① 모음, ② 자음+모음, ③ 모음+자음, ④ 자음+모음+자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꽃[꼇]’은 ④, ‘잎[입]’은 ③에 속하지요. 그런데 복합어 ‘꽃잎’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 [꼇닙]으로 발음돼요. 이때 [닙]은 ④에 해당되며 음운의 첨가로 음절 유형이 바뀐 것이지요.

이제 아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밥상(밥+상), 집일(집+일), 의복함(의복+함),
 국물(국+물), 화살(화+살)

학생: [A]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밥상[밥쌩]’에서의 [쌩]은 첨가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어인 ‘상[상]’과 달라졌어요.
- ② ‘집일[집닐]’에서의 [닐]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어인 ‘일[일]’과 달라졌어요.
- ③ ‘의복함[의보캄]’에서의 [캄]은 축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어인 ‘함[함]’과 달라졌어요.
- ④ ‘국물[궁물]’에서의 [궁]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어인 ‘국[국]’과 같아요.
- ⑤ ‘화살[화샬]’에서의 [화]는 탈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어인 ‘활[활]’과 같아요.

14. <학습 활동>을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는 시제 및 단어의 품사에 의해 결정된다. [자료]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시제를 분석하여 그 단어에 쓰인 어미가 [표]의 ㉠~㉣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자료]

㉠ 하늘에 뜬 태양	㉡ 우리가 즐겨 부르던 노래
㉢ 늘 푸르던 하늘	㉣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 내가 읽는 소설	㉥ 이미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
㉦ 달리기가 제일 빠른 친구	

[표] 관형사형 어미 체계

	동사	형용사
현재	-는	㉠
과거	㉡	㉣
	-던	
미래	-(으)㉢	-(으)㉣

- ① ㉠의 '뜬'에 쓰인 어미 '-(으)㉢'은 ㉠에 해당한다.
- ② ㉡의 '부르던'과 ㉣의 '푸르던'에 쓰인 어미 '-던'은 ㉣에 해당한다.
- ③ ㉣의 '남은'과 ㉥의 '찬'에 쓰인 어미 '-(으)㉢'은 ㉡에 해당한다.
- ④ ㉤의 '읽는'에 쓰인 어미 '-는'은 ㉡에 해당한다.
- ⑤ ㉦의 '빠른'에 쓰인 어미 '-(으)㉢'은 ㉣에 해당한다.

15.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음운 조건에 따라 '이', '∅(영형태)', 'ㅣ'로 실현되었다.

- 자음 다음에는 '이'가 나타났다. ㉠
예) 바비(밥+이) [밥이]
- 모음 '이'나 반모음 'ㅣ' 다음에는 '∅(영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
예) 활 쏘리(활 쏘 이+∅) [활 쏘 이가], 새(새+∅) [새가]
- 모음 '이'와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 다음에는 'ㅣ'가 나타났다. 예) 쇠(쇼+ㅣ) [소가]
- 음운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되기도 했다. ㉢
예) 꽃 도쿄 [꽃 좋고], 나무 셋는 [나무 서 있는]

—<보기 2>—

㉠: 나리 저므러	[날이 저물어]
㉡: 太子 오느다 드르시고	[태자 온다 들으시고]
㉢: 내해 드리 업도다	[개천에 다리가 없도다]
㉣: 아드리 孝道호고	[아들이 효도하고]
㉤: 孔子ㅣ 드르시고	[공자가 들으시고]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 영수는 서울에서/서울에 산다.
- (2) 민수는 방에서/ *방에 공부하고 있다.
- (3) 학교에서 체육 대회를 열었다.

(1)에서는 ‘에’와 ‘에서’를 다 쓸 수 있는데, 왜 (2)에서는 ‘에서’를 쓰고 ‘에’는 쓸 수 없을까? 또 왜 (3)에서는 ‘에서’를 주격 조사로 쓸 수 있을까?

‘에’와 ‘에서’는 모두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붙지만, (1)에서 ‘서울’은 ‘에’가 붙어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의미가 되고, ‘에서’가 붙어 행위를 하거나 일이 발생하는 [공간]의 의미가 된다. 즉, 똑같은 장소라도 지점으로 인식되면 ‘에’를 쓰고, 공간으로 인식되면 ‘에서’를 쓴다. (2)에서 ‘방에’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장소인 ‘방’은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에’와 ‘에서’의 쓰임이 구분되는 것은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서’의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애/에/예, 인/의’와 ‘이시다(현대 국어 ‘있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결합된 말들이 줄어서 ‘애서/에서/예서, 인서/의서’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시다’를 포함하므로,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애서/에서/예서, 인서/의서’ 앞의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에 ‘애/에/예, 인/의’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애/에/예, 인/의’가 현대 국어의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애서/에서/예서, 인서/의서’ 앞의 명사가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면, 그 공간이나 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그 공간이나 집단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에 따라 중세 국어에서 ‘애서/에서/예서, 인서/의서’가 주격 조사로도 쓰인 경우가 있다. 이들은 현대 국어의 ‘에서’로 이어지는데 (3)과 같은 예에서 그러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때에는 ‘에서’ 앞에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유정 명사는 올 수 없다. 부사격 조사 ‘에’에 ‘서’가 붙은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인 것처럼 부사격 조사 ‘께’에 ‘서’가 붙은 ‘께서’도 주격 조사로 쓰인다. ‘께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부사격 조사 ‘씨셔’ 역시 ‘씨’와 ‘셔’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는데,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주격 조사로 변화하여 현대 국어의 ‘께서’로 이어졌다. 중세 국어의 ‘에서’, 현대 국어의 ‘에서’와 달리 중세 국어의 ‘씨셔’, 현대 국어의 ‘께서’는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난다.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중세 국어에서 ‘에’ 앞의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 ② 현대 국어에서 ‘에’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에서’ 앞에 붙을 수 없다.
- ③ 중세 국어의 ‘애/에/예’는 ‘인/의’와 달리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다.
- ④ 현대 국어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서’에서 ‘셔’는 지점의 의미를 나타냈다.
- ⑤ 중세 국어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에서’ 앞에 유정 명사가 오기 때문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현대 국어의 예
㉠ 그 지역에서 공통 화석이 발견되었다. ㉡ 정부에서 홍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 할머니께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셨다.
중세 국어의 예
㉣ 一物이라도 그위에서 다 아소물 슬노라 (물건 하나라도 관청에서 다 빼앗음을 슬퍼하노라.) ㉤ 부터씨셔 十二部經이 나시고 (부처님으로부터 12부의 경전이 나오고)

- ① ㉠: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② ㉡: 집단을 의미하는 ‘정부’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③ ㉢: 높임의 유정 명사인 ‘할머니’에 주격 조사 ‘께서’가 붙었군.
- ④ ㉣: ‘그위에서’는 ‘그위’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⑤ ㉤: 높임의 유정 명사인 ‘부터’에 부사격 조사 ‘씨셔’가 붙었군.

1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부정확한 발음에 대해 알아보까요? 우선 아래 표에서 부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예	찰흙이	안팎을	넋이	끝을	숲에
부정확한 발음	[찰흐기]	[안파글]	[너기]	[끄출]	[수베]
	↓	↓	↓	↓	↓
정확한 발음	[찰흙기]	[안파꿀]	[넋씨]	[끄뜰]	[수페]

다 봤나요? 그럼 정확한 발음을 참고하여, 부정확한 발음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해 볼까요?

학생:

선생님: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정확한 발음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세요.

- ① ‘찰흙이’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습해야 하는데, [찰흐기]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습을 했습니다.
- ② ‘안팎을’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습해야 하는데, [안파글]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 ③ ‘넋이’는 연습을 하고 된소리되기를 적용해야 하는데, [너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 ④ ‘끝을’은 연습을 하고 구개음화를 적용해야 하는데, [끄출]은 구개음화를 적용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 ⑤ ‘숲에’는 거센소리되기를 적용하지 않고 연습해야 하는데, [수베]는 거센소리되기를 적용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14. <보기>의 ㉠과 ㉡을 모두 충족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붙잡다’의 어간 ‘붙잡-’은 어근 ‘붙-’과 어근 ‘잡-’으로 나뉘고, ‘잡히다’의 어간 ‘잡히-’는 어근 ‘잡-’과 접사 ‘-히-’로 나뉜다. 이렇듯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 하는데,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는 말을 합성어라 하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는 말을 파생어라 한다.

그런데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이때 ㉡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면 합성어이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면 파생어이다. 예컨대 ‘밀어붙이다’는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므로 합성어이다.

- ① 밤새 거센 비바람이 내리쳤다.
- ②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 ③ 차바퀴가 진흙 바닥에서 헛돌았다.
- ④ 거리에는 매일 많은 사람이 오간다.
- ⑤ 그들은 끊임없이 짓밟혀도 굴하지 않았다.

15.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습 활동]
 겹문장은 홑문장보다 복잡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료>에 제시된 홑문장을 활용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겹문장을 만들어 보자.

<자료>	<조건>
• 날씨가 춥다.	㉠ 명사절을 안은 문장
• 형은 물을 마셨다.	㉡ 관형절을 안은 문장
•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 부사절을 안은 문장
•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	㉣ 인용절을 안은 문장
• 형은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① ㉠: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얼음을 먹었다.
- ② ㉡: 형은 얼음을 먹는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 ③ ㉢: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이 얼음을 먹었다.
- ④ ㉣: 형은 동생에게 날씨가 춥다고 불평을 했다.
- ⑤ ㉣: 형은 물을 마셨지만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가독성을 위해 여백으로 처리

14.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풀잎[풀립]	㉡ 읊네[음네]	㉢ 벼훤이[벼훤치]
----------	----------	------------

- ① ㉠, ㉡에서는 음운 변동이 각각 세 번씩 일어났군.
- ② ㉠, ㉡에서는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③ ㉠에서 첨가된 음운과 ㉡에서 탈락된 음운은 서로 다르군.
- ④ ㉠, ㉢에서는 음운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⑤ ㉠은 'ㄹ'로 인해, ㉢은 모음 'ㅣ'로 인해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15.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의 설명]
 여러분, '쓰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쓰이다'는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하므로 이를 구별해야겠죠? 또한 '쓰다'는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이므로 그 의미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어를 이해할 때,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 볼까요?

[학습 활동]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하여 각각의 피동사와 사동사가 포함된 예를 들어 보자.

갈다 ¹ ㉠ […을 …으로] ㉡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깎다 ㉠ […을] ㉢ 값이나 금액을 낮추어서 줄이다.
묻다 ¹ ㉠ […에] ㉠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물다 ² ㉠ […을] ㉡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운 상태로 상체가 날 만큼 세게 누르다.
쏟다 ² ㉠ […을] ㉠ 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리다.

피동문	사동문
㉠	㉡

- ① [㉠: 학생회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다.
 ㉡: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렸다.
- ② [㉠: 용돈이 이달에 만 원이나 깎였다.
 ㉡: 나는 저번 실수로 점수를 깎였다.
- ③ [㉠: 내 친구는 가래떡에 꿀만 묻혔다.
 ㉡: 누나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혔다.
- ④ [㉠: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렸다.
 ㉡: 큰형이 동네 개에게 발을 물렸다.
- ⑤ [㉠: 큰 마당의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렸다.

1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B]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입술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낮이 고모음	ㅣ	ㄱ	ㅡ	ㅜ
중모음	ㅔ	ㅖ	ㅑ	ㅗ
저모음	ㅐ		ㅓ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들 중 을 확인할 수 있군.

- ① 2개의 전설 모음 ② 2개의 중모음
- ③ 3개의 평순 모음 ④ 3개의 고모음
- ⑤ 4개의 후설 모음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 국어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ㄱ’로 끝나는 명사 ‘밭’, ‘술’, ‘이튿날’이 ㉠ ‘밭가락’, ㉡ ‘소나무’, ㉢ ‘이튿날’과 같은 합성어들에서는 받침 ‘ㄱ’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의 옛 모습을 알아야 한다.

‘소나무’에서는 ‘밭가락’에서와는 달리 받침 ‘ㄱ’이 탈락하였고, ‘이튿날’에서는 받침이 ‘ㄱ’이 아닌 ‘ㄷ’이다. 모두 ‘ㄱ’ 받침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현대 국어에는 받침 ‘ㄱ’이 ‘ㄷ’으로 바뀌거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ㄱ’이 탈락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대 국어의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밭가락’은 중세 국어에서 대부분 ‘밭 가락’으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 ‘ㅅ’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밭 가락’은 구로 파악된다. 이는 ‘밭 엄지 가락(엄지밭가락)’과 같은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후 ‘ㅅ’은 점차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고 합성어 내부의 사이시옷으로만 흔적이 남았는데, 이에 따라 중세 국어 ‘밭 가락’은 현대 국어 ‘밭가락[밭까락]’이 되었다.

‘소나무’는 중세 국어에서 명사 ‘술’에 ‘나무’의 옛말인 ‘나모’가 결합하고 ‘ㄱ’이 탈락한 합성어 ‘소나모’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ㄴ,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ㄱ’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술’의 ‘ㄱ’이 탈락하였다.

‘이튿날’은 중세 국어에서 자립 명사 ‘이튿’과 ‘날’ 사이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이튿 날’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ㅅ’은 ‘이튿 밤’, ‘이튿 길’에서의 ‘ㅅ’과 같은 것이다.

[A] 중세 국어에서 ‘이튿 날’은 ‘이튿 날’로도 나타났는데, 근대 국어로 오면서는 ‘ㄱ’이 탈락한 합성어 ‘이튿날’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ㅅ’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어 가고, 받침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튿날’의 표기와 관련하여 “끝소리가 ‘ㄱ’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ㄱ’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튿날’로 적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의 ‘ㄷ’은 ‘ㄱ’이 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중세 국어 ‘뭇 사람’에서 온 ‘뭇사람’에서처럼 ‘ㅅ’으로 적는 것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12. 윗글을 참고할 때, ㉠~㉢과 같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예를 <보기>에서 각각 하나씩 찾아 그 순서대로 제시한 것은?

<보 기>

무술(물+술)	쌀가루(쌀+가루)
난알(난+알)	술방울(술+방울)
선달(선+달)	푸나무(풀+나무)

- ① 술방울, 무술, 난알 ② 술방울, 푸나무, 선달
- ③ 푸나무, 무술, 선달 ④ 쌀가루, 푸나무, 난알
- ⑤ 쌀가루, 술방울, 선달

1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탐구 주제]
○ ‘숯가락’은 ‘젓가락’과 달리 왜 첫 글자의 받침이 ‘ㄷ’일까?

[자료]

중세 국어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 자르며 저 놓느니(술가락 잡으며 젓가락 놓으니) • 숯 근(술가락의 끝), 젓 가락 근(젓가락 끝), 수저(수저) • 뭇(무리), 뭇 사람(뭇사람, 여러 사람) 	
근대 국어의 예	현대 국어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숯가락 장스(술가락 장사) • 뭇사람(뭇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로 밥을 뜨다 • 숯가락으로 밥을 뜨다 • 밥 한 술

※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① 중세 국어 ‘술’과 ‘저’는 중세 국어 ‘이튿’처럼 자립 명사라는 점에서 현대 국어 ‘숯’과는 차이가 있군.
- ② 중세 국어 ‘술’과 ‘저’의 결합에서 ‘ㄱ’이 탈락한 합성어가 현대 국어 ‘수저’로 이어졌군.
- ③ 중세 국어 ‘술’과 ‘저’는 명사를 수식할 때, 중세 국어 ‘이튿’이나 ‘뭇’과 같이 모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할 수 있었군.
- ④ 근대 국어 ‘숯가락’이 현대 국어에 와서 ‘숯가락’으로 적히는 것은,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튿날’의 경우와 같군.
- ⑤ 현대 국어 ‘숯가락’과 ‘뭇사람’의 첫 글자 받침이 다른 이유는 중세 국어 ‘숯’과 ‘뭇’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ㄱ’이 탈락한 후 남은 ‘ㅅ’의 발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군.

14.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그는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다.
㉡ 바다가 눈이 부시게 파랗다.
㉢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

- ① ㉠의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군.
- ② ㉡의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 ③ ㉢의 ‘별을’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목적어이군.
- ④ ㉠의 ‘좋은’과 ㉢의 ‘반짝이는’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군.
- ⑤ ㉡의 ‘눈이 부시게’와 ㉢의 ‘반짝이는’은 수식의 기능을 하는군.

가독성을 위해 여백으로 처리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 한다.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형태, 기능, 의미’가 있다. ‘형태’는 단어가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에 관한 것이고 ‘기능’은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과 관련된다. ‘의미’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어 부류가 가지는 추상적인 의미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적용하여 ㉠ 활용하지 않으며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 활용하고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 활용하지 않으며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 활용하지 않으며 앞말에 붙어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말, ㉤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 등으로 개별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단어의 품사를 분류할 때에는 분류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있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대표적인데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사물의 작용의 일종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동사는 의미상 매우 밀접하여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가령 ‘햇살이 밝다’에서의 ‘밝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날이 밝는다’에서의 ‘밝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활용 양상을 내세우기도 한다.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선어말 어미 ‘-ㄴ/는’, 관형사형 어미 ‘-는’, 명령형·칭유형 종결 어미,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등과 결합하여 쓰이지 않는다.

다만, ‘있다’의 경우는 품사를 분류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존재’,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는 형용사로, ‘한 장소에 머뭇’의 의미인 ‘있다’는 동사로 분류되는데, 동사 ‘있다’뿐만 아니라 형용사의 ‘있다’가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형용사 ‘없다’의 경우도 반의어인 형용사 ‘있다’와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여 준다.

11.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옛날 사진을 보니 즐거운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 ① ‘옛날, 사진, 기억’은 ㉠에 해당하고 명사이다.
- ② ‘보니, 떠올랐다’는 ㉡에 해당하고 동사이다.
- ③ ‘하나’는 ㉢에 해당하고 수사이다.
- ④ ‘을, 가’는 ㉣에 해당하고 조사이다.
- ⑤ ‘즐거운’은 ㉤에 해당하고 관형사이다.

12.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영화가 밥을 먹었다. / 꽃이 예뻐다.
영화가 밥을 먹는다. / *꽃이 예쁘다.

㉡ [영화야, 밥 먹어라. / *영화야, 좀 예빠라.
영화야, 밥 먹자. / *우리 좀 예쁘자.

㉢ [밥 먹으려고 식당으로 갔다. / *예쁘려고 미용실에 갔다.
밥 먹으러 식당에 갔다. / *예쁘러 미용실에 갔다.

㉣ [나에게는 돈이 있다. / 돈이 있는 사람
나에게는 돈이 없다. / 돈이 없는 사람

㉤ [나무가 크다. / 나무가 쭉쭉 크다.
머리카락이 길다. / 머리카락이 잘 긴다.

※ ‘*’는 비문임을 나타냄.

- ① ㉠: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 ② ㉡: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명령형·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 ③ ㉢: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의도·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 ④ ㉣: ‘있다’와 ‘없다’는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동사로 쓰이고 있다.
- ⑤ ㉤: ‘크다’와 ‘길다’는 형용사, 동사로 모두 쓰이고 있다.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로마자 표기 한글 대조표>

	자음	ㄱ	ㄷ	ㅂ	ㅌ	ㄴ	ㅁ	ㅇ	ㅈ	ㅊ	ㅌ	ㅎ
표기	모음 앞	g	d	b	tt	n	m	ng	j	ch	t	h
표기	그 외	k	t	p								

모음	ㅏ	ㅑ	ㅓ	ㅕ
표기	a	ae	o	i

<로마자 표기의 예>

	한글 표기	발음	로마자 표기
㉠	같이	[가치]	gachi
㉡	잡다	[잡따]	japda
㉢	놓치	[노치]	nochi
㉣	맨입	[맨닙]	maennip
㉤	백미	[뱅미]	baengmi

- ①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땀받이[땀바지]’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②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삭제[삭제]’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③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닭이[다라]’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④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한여름[한너름]’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⑤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밤물[밤물]’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14.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는데, 이 선어말 어미는 음운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다.

어간 말음 조건	형태	용례
‘ㄱ, ㅂ, ㅅ, ㅎ’일 때	-습-	돕습고
‘ㄷ, ㅈ, ㅊ’일 때	-줍-	묻줍고
모음이나 ‘ㄴ, ㄹ, ㄷ’일 때	-습-	보습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습-, -줍-, -습-’으로 실현되었다.

- 아래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이다.
- 王(왕)이 부텨긔 더욱 敬信(경신)흐 므스물 내스바
[왕이 부처께 더욱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어]
- 어간 ‘듣-’과 어미 ‘-으며’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활용했다.
- 내 아래브터 부텨긔 이런 마를 몬 (㉡)
[내가 예전부터 부처께 이런 말을 못 들으며]

- | | |
|--------|------|
| ㉠ | ㉡ |
| ① 王(왕) | 듣즈븨며 |
| ② 王(왕) | 듣스븨며 |
| ③ 부텨 | 듣즈븨며 |
| ④ 부텨 | 듣스븨며 |
| ⑤ 므스 | 듣스븨며 |

15.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탐구 과제
하나의 문장이 안긴문장으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각 문장에서 안긴문장을 파악한 후,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 자료

- ㉠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 ㉡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그곳에 안 왔다.
- ㉢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 ㉣ 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 ㉤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

	안긴문장의 종류	생략된 문장 성분
①	㉠ 부사절	없음
②	㉡ 명사절	없음
③	㉢ 명사절	주어
④	㉣ 관형절	부사어
⑤	㉤ 관형절	목적어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 ‘-(으)ㄴ’이나 ‘-이’가 결합된 단어들 중에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명사 ‘걸음’과 동사의 명사형 ‘걸음’, 명사 ‘높이’와 부사 ‘높이’가 그러하다. 이는 용언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과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의 형태가 같고, ‘높다’ 등의 일부 형용사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 ‘-이’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형태가 같기 때문이다.

이들의 품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명사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술어로 쓰일 수 없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반면 ㉠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 하더라도 문장이나 절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리고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다른 부사어나 서술어 등을 수식한다.

한편 이들 ‘-(으)ㄴ’과 ‘-이’가 중세 국어에서는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형태만으로 품사를 구별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두 가지 ‘-(으)ㄴ’은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으/으)ㄴ’과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음’에 각각 대응한다. 이러한 구별은 ‘흔 거름 나소 거름(한 걸음 나아가도록 걸음)’에서 확인된다. ‘건-’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어근이나 용언 어간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으)ㄴ’과 ‘-음’이 각각 결합한다.

앞서 말한 현대 국어의 두 가지 ‘-이’ 역시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이/의’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에 각각 대응한다. 이러한 구별은 ‘나뭇 노퍽(나무의 높이)’와 ‘노퍽 느는 저비(높이 나는 제비)’에서 확인된다. ‘높-’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어근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명사 파생 접미사 ‘-의’가 결합한다. 그런데 부사 파생 접미사는 ‘-이’ 하나여서 모음조화에 상관없이 ‘-이’가 결합한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흔 여름 여루미(좋은 열매 열림이)’에서 ‘여름’과 ‘여름’의 형태를 보니, 이 둘의 품사가 다르겠군.
- ② ‘거름’과 ‘거름’의 형태를 보니, ‘거름’은 파생 명사이고 ‘거름’은 동사의 명사형이겠군.
- ③ ‘거름’과 ‘노퍽’의 모음조화 양상을 보니, 중세 국어 ‘높-’에는 ‘-음’이 아니고 ‘-음’이 결합하겠군.
- ④ ‘노퍽’와 ‘노퍽’의 형태를 보니, ‘노퍽’는 파생 부사이고 ‘노퍽’는 파생 명사이겠군.
- ⑤ 중세 국어의 형용사 ‘곧다’, ‘곧다’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와 결합할 때, 그 형태가 모음조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군.

12.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에 해당하는 예로만 묶인 것은?

- ① [많이 앞이 항상 미덕인 것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한 슬픔으로 떨렸다.
- ② [멸치 볶음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오빠는 몹시 기쁨에도 내색을 안 했다.
- ③ [요즘은 상품을 큰 묶음으로 파는 가게가 많다.
무용수들이 군무를 출과 동시에 조명이 켜졌다.
- ④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보람을 찾는 이도 있다.
나는 그를 온전히 믿음에도 그 일은 맡기고 싶지 않다.
- ⑤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빨리 오라고 소리쳤다.
수술 뒤 친구가 밝게 웃음을 보니 나도 마음이 놓였다.

13. <보기>의 [1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아래의 조건 ㉠~㉤가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된다. 단, ‘곶간, 셋방, 숫자, 찻간, 뒷간, 횡수’는 예외이다.

○ 사이시옷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

- ㉠ 단어 분류상 ‘합성 명사’일 것.
- ㉡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고유어+고유어 • 고유어+한자어 • 한자어+고유어
- ㉢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 ㉣ 두 말이 결합하며 발생하는 음운 현상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앞말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남.
 - 앞말 끝소리와 뒷말 첫소리에 각각 ‘ㄴ’ 소리가 덧남.
 -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

㉠~㉣ 각각의 쌍은 위 조건 ㉠~㉣ 중 [1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 예이다.

	사이시옷이 없는 단어	사이시옷이 있는 단어
㉠	도매가격[도매까격]	도맷값[도매깅]
㉡	전세방[전세뺑]	아랫방[아래뺑]
㉢	버섯국[버섯꾹]	조갯국[조개꾹]
㉣	인사말[인사말]	존댓말[존덴말]
㉤	나무껍질[나무껍질]	나뭇가지[나무까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4.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탐구 과제
 겹받침을 가진 용언을 발음할 때 어떤 음운 변동이 나타나야 표준 발음에 맞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으로 비표준 발음과 표준 발음을 설명해 보자.

○ 탐구 자료

	비표준 발음	표준 발음
㉠ 굵는	[글른]	[궁는]
㉡ 째네	[째네]	[잘래]
㉢ 끈기고	[끈기고]	[끈키고]
㉣ 똥지	[똥지]	[똥치]

○ 탐구 내용
 ㉠의 비표준 발음과 ㉡의 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가 나타난다. 이에 비해, ㉠의 표준 발음과 ㉡의 비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가 나타난다. ㉢과 ㉣의 표준 발음은 (㉢)만 일어난 발음이다.

- | | ㉠ | ㉡ | ㉢ |
|---|-----|-------|--------|
| ① | 유음화 | 비음화 | 거센소리되기 |
| ② | 유음화 | 비음화 | 된소리되기 |
| ③ | 비음화 | 유음화 | 거센소리되기 |
| ④ | 비음화 | 유음화 | 된소리되기 |
| ⑤ | 비음화 | 된소리되기 | 거센소리되기 |

15.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어말 어미 ‘-더-’는 시간 표현, 주어의 인칭, 용언의 품사, 문장 종결 표현 등과 다양하게 관련을 맺는다.

예컨대 ‘아까 달력을 보니 내일이 언니 생일이더라.’와 같이 ㉠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비록 미래의 일이라도 그것을 안 지점이 과거이면 ‘-더-’가 쓰일 수 있다. 또한 ‘-더-’가 쓰인 문장에는 특정 인칭의 주어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령, ㉡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평서문에는 1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 이 경우, 의문문에는 2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단, ㉣ 이때도 수사 의문문에는 ‘-더-’와 함께 1인칭 주어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꿈에서 내가 하늘을 날더라.’처럼 ㉤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타인이 관찰하듯이 진술할 경우 ‘-더-’가 1인칭 주어와 쓰일 수 있다.

- ① ㉠: 아까 수첩을 보니 다음 주에 약속이 있더라.
- ② ㉡: 나는 그의 합격이 놀랍더라.
- ③ ㉢: 영수야, 넌 내가 그리 말했는데도 안 밉더냐?
- ④ ㉣: 기어이 우승한 그날, 우리 어찌 아니 기쁘더냐?
- ⑤ ㉤: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단어들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파생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파생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어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 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어미와 조사는 파생 접사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도 있다. 먼저 용언의 활용형이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가 있다. 부사 ‘하지만’은 ‘하다’의 어간에 어미 ‘-지만’이 결합했던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다음으로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도 있다. 명사 ‘아기’에 호격 조사 ‘아’가 결합했던 형태인 ‘아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또 다른 예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엇던 사람고(이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구’는 문장에 ‘엇던’, ‘므슴’,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 의문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 구성은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의 일부 방언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11.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기장수가 맨손으로 산 위에 쌓인 바위를 깨뜨리는 모습이 멋졌다.

- ① ‘아기장수가’의 ‘아기장수’는 ㉠에 해당하는 예로,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했다.
- ② ‘맨손으로’의 ‘맨손’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했다.
- ③ ‘쌓인’의 어간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이-’가 어근 ‘쌓-’ 뒤에 결합했다.
- ④ ‘깨뜨리는’은 ㉣에 해당하는 예로, 어미 ‘-리는’이 용언 어간 ‘깨뜨-’와 결합했다.
- ⑤ ‘모습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체언 ‘모습’과 결합했다.

1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탐구 목표]
현대 국어의 인칭 대명사 '누구'의 형성에 대해 이해한다.

[자료]
(가) 중세 국어: 15세기 국어
 • 누를 니르더뇨(누구를 이르던가?)
 • 네 스승이 누고(네 스승이 누구인가?)
 • 놋된 누구(남은 누구인가?)
 (나) 근대 국어
 • 이 벗은 누고고(이 벗은 누구인가?)
 • 저 훈 벗은 누구고(저 한 벗은 누구인가?)
 (다) 현대 국어
 • 누구를 찾으세요?
 • 누구에게 말했어요?

[탐구 내용]

[탐구 결과]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했던 형태인 '누고',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다.

- ① (가)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 '누고', '누구'이다.
- ② (나)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고', '누구'이다.
- ③ (다)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이다.
- ④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누고', '누구'는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 ⑤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누고'는 쓰이지 않고 '누구'만이 쓰이고 있다.

13. 다음은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군.
②	• 함박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 있다. ⇒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펑펑'이 부사어로 쓰였군.
③	• 그는 너무 험 차를 한 대 샀다. ⇒ 부사어 '너무'가 서술어 '샀다'를 수식하는군.
④	㉠ 영이는 엄마와 닮았다. / *영이는 닮았다. ㉡ 영이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 영이는 책을 읽는다. ⇒ ㉠의 '엄마와', ㉡의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의 '엄마와'는 ㉡의 '취미로'와 달리 필수 성분이군.
⑤	㉢ 모든 것이 재로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의 '재로'는 부사어이고 ㉣의 '재가'는 보어로서,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군.

* '는' 비문임을 나타냄.

14.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흙일 → [홍닐]
 ㉡ 닳는 → [달른]
 ㉢ 발야구 → [발랴구]

- ①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 ③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다.
- ④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 ⑤ ㉢에서 첨가된 음운은 ㉠에서 첨가된 음운과 같다.

15. <보기>는 사전의 개정 내용을 정리한 자료의 일부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개정 전	개정 후
㉠	굽다 ㉠ 「1」 손톱이나 뾰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 ⋮ 「9」 ……	굽다 ㉠ 「1」 손톱이나 뾰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 ⋮ 「9」 …… 「10」 물건 따위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다.
㉡	김-뱀 [김 : 뱀] ㉡ ……	김-뱀 [김 : 뱀/김 : 뱀] ㉡ ……
㉢	냄새 ㉢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낚새. 내음 ㉢ '냄새'의 방언(경상).	냄새 ㉢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낚새. 내음 ㉢ 코로 맡을 수 있는 나쁘지 않거나 향기로운 기운.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
㉣	태양-계 ㉣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9개의 행성, ……	태양-계 ㉣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8개의 행성, ……
㉤	(표제어 없음)	스마트-폰 ㉤ 휴대 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 사전의 개정 내용은 표준어와 표준 발음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임.

- ① ㉠: 표제어의 뜻풀이가 추가되어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가 수정되었군.
- ② ㉡: 표준 발음이 추가로 인정되어 기존의 표준 발음과 함께 제시되었군.
- ③ ㉢: 방언이었던 단어가 표준어의 지위를 얻고 뜻풀이도 새롭게 제시되었군.
- ④ ㉣: 과학적 정보를 반영하여 뜻풀이 일부가 갱신되었군.
- ⑤ ㉤: 새로운 문물을 지칭하는 신어가 표제어로 추가되었군.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인공위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죠? 그런데 ‘인공위성’은 옛날에는 쓰이지 않았던 말입니다.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행성의 궤도를 도는 인공적 물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물체를 가리키는 말이 필요해서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생긴 거겠죠?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학생 1: ‘인공’과 ‘위성’을 합쳐 만든 것입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위성’이라는 말을 만든 것처럼 새 단어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볼 텐데, 그중에서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합성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성 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학생 2: 선생님, 합성 명사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말 아닌가요?

선생님: 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 ‘논밭, 불고기’처럼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밖에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한 ‘건널목, 노림수, 섞어찌개’와 같은 경우도 있고 ‘새색시’처럼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 3: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합성 명사들을 보니 뒤의 말이 모두 명사네요?

선생님: 그래요. 우리말에서 합성어의 품사는 뒤에 오는 말의 품사와 같은 것이 원칙이에요. 앞에서 말한 예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달리 ㉠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도 있습니다.

학생 4: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 보니 요즘 자주 쓰는 말들은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인강’이라는 말은 ‘인터넷’과 ‘강의’가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과 뒷말의 첫 음절만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또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컴시인’은 ‘컴퓨터’와 ‘원시인’이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의 첫 음절과 뒷말의 둘째, 셋째 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11. <보기>의 ㄱ~ㅍ 중 윗글에서 설명한 단어 형성 방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선생님'을 줄여서 '쌤'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ㄴ. '개-'와 '살구'를 결합하여 '개살구'라는 말을 만들었다.
 ㄷ. '사범'과 '대학'을 결합하여 '사대'라는 말을 만들었다.
 ㄹ. '점잖다'라는 형용사로부터 '점잔'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ㅁ. '비빔'과 '냉면'을 결합하여 '비빔냉면'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 ① ㄱ, ㄹ ② ㄷ,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12. 밑줄 친 단어 중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② 언니는 가구를 전부 새것으로 바꿨다.
 ③ 아이가 요사이에 몰라보게 훌쩍 컸다.
 ④ 오늘날에는 교육에서 창의성이 중시된다.
 ⑤ 나는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13. <보기>의 담화 상황에서 ㉠~㉤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수빈, 나경, 세은이 대화를 하고 있다.)
 수빈: 나경아, 머리핀 못 보던 거네. 예쁘다.
 나경: 고마워. ㉠ 우리 엄마가 얼마 전 새로 생긴 선물 가게에서 사 주셨어.
 세은: 너희 어머니 참 자상하시네. 나도 그런 머리핀 하나 사고 싶은데 ㉡ 우리 셋이 지금 사러 갈까?
 수빈: 미안해.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 우리 집에 일이 있어 못 갈 것 같아.
 세은: 그래? 그럼 할 수 없네. ㉣ 우리끼리 가지, 뭐.
 나경: 그래, 수빈아. 다음엔 꼭 ㉤ 우리 다 같이 가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보기 1>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가 서로 달랐다.
 ㉡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 높임의 호격 조사로서 현대 국어에 없는 형태가 있었다.
 ㉣ 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가 있었다.
 ㉤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보기 2>

㉠ 므슴 마를 니르느뇨 [무슨 말을 말하느냐?]
 ㉡ 저므며 늘구미 잇느녀 [끓으며 늡음이 있느냐?]
 ㉢ 虛空과 벼를 보더시니 [허공과 별을 보시더니]
 ㉣ 世尊하 내 堂中에 이셔 몬져 如來 보습고 [세존이시여, 내가 집 안에서 먼저 여래 뵈고]

- ① ㉠의 '니르느뇨'와 ㉡의 '잇느녀'를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② ㉠의 '마를'과 ㉢의 '벼를'을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③ ㉣의 '世尊하'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④ ㉢의 '보더시니'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의 '보습고'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15.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
 ㉡ 그가 집에 갔다. /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
 ㉢ 내가 떠날 때 비가 올 것이다. /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
 ㉣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 /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
 ㉤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 / 작년에 그는 키가 작았다.

- ① ㉠을 보니, 선어말 어미 '-겠-'이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군.
 ② ㉡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③ ㉢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 '-르-'이 붙을 때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④ ㉣을 보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군.
 ⑤ ㉤을 보니,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군.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어의 의미 관계 중 상하 관계는 의미상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때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라 하고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 하는데,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의어일수록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상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상의어와 하의어가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이를테면 ‘구기’는 ‘스포츠’와의 관계 속에서 하의어가 되지만, ‘축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상의어가 된다. 그런데 ‘구기’의 하의어에는 ‘축구’ 외에 ‘야구’, ‘농구’ 등이 더 있다. 이때 상의어인 ‘구기’에 대해 하의어 ‘축구’, ‘야구’, ‘농구’ 등은 같은 계층에 있어 이들을 상의어 ‘구기’의 공하의어라 하며, 이들 공하의어 사이에는 ㉠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곧 어떤 구기가 ‘축구’이면서 동시에 ‘야구’나 ‘농구’일 수는 없다.

한편 상하 관계에서는 하의어들이 상의어의 의미를 이어받아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일례로 어떤 새가 ‘장끼’이면 그 ‘장끼’는 상의어 ‘꿩’의 의미를 이어받으므로 ‘꿩’을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새가 ‘꿩’이라 해서 그것이 꼭 ‘장끼’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의어는 하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지 못한다. 이를 ‘[]’로 표현하는 의미 자질로 설명하면,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꿩’의 의미 자질들을 가지면서 [수컷]이라는 의미 자질을 더 가져, 결국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꿩’보다 의미 자질 개수가 많다. 곧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은 하의어는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폈듯이 ‘구기’의 공하의어가 여러 개인 것과 달리, ‘꿩’의 공하의어는 성별로 구분했을 때 ‘장끼’와 ‘까투리’ 둘뿐이다. ‘구기’의 공하의어인 ‘축구’, ‘야구’ 등과 마찬가지로 ‘장끼’, ‘까투리’는 ‘꿩’의 공하의어로서 비양립 관계에 있다. 그러나 ‘장끼’와 ‘까투리’의 경우, ‘장끼’가 아닌 것은 곧 ‘까투리’이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 상의어가 같은 계층의 두 단어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하면, 그 공하의어들은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악기(樂器)[-끼] [명]
 [음악] 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연주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눈다.

타-악기(打樂器)[타:-끼] [명]
 [음악]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팀파니, 실로폰, 북이나 심벌즈 따위이다.

- ① ‘타악기’는 ‘실로폰’의 상의어로서 ‘실로폰’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겠군.
- ② ‘북’은 ‘타악기’의 하의어이므로 [두드림]을 의미 자질 중 하나로 갖겠군.

- ③ '기구'는 '악기'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악기'는 '북'을 의미적으로 함의하겠군.
- ④ '타악기'와 '심벌즈'는 모두 '기구'의 하의어이지만, '기구'의 공하의어는 아니겠군.
- ⑤ '현악기'와 '관악기'는 '악기'의 공하의어이므로 모두 '악기'의 상위어 '기구'보다 의미 자질의 개수가 많겠군.

1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 쌍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여름에 고향을 출발한 그가 마침내 ㉡ 북극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나는 다급해졌다. 지구의 양극 중 ㉢ 남극에는 내가 먼저 가야 했다. 남극 대륙은 ㉣ 계절이 여름이어도 내 고향의 ㉤ 겨울만큼 바람이 잦다. 남극 대륙에서 나를 위로해 준 것은 썰매를 끄는 ㉥ 개들과 귀여운 몸짓을 하는 ㉦ 펭귄들, 그리고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 갈매기들뿐이었다.

- ①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13.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짐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담만[당만]'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① '혹하고[호카고]'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군.
- ② '저녁연기[저녕년기]'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늘었군.
- ③ '부엌문[부엌문]'과 '볶는[봉는]'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 ④ '엷지[언찌]'와 '물고[물꼬]'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었군.
- ⑤ '넓네[널레]'와 '밝는[방는]'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두 개 줄었군.

14.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 ㉢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 ㉣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 ① ㉠과 ㉡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고, ㉡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④ ㉠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⑤ ㉢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15.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먼저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이'가 나타났다.

- 상네 쓰는 힘 일후미라(일흠+이라) (보통 쓰는 힘의 이름이다)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이거나 반모음 'ㅣ'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 牛頭는 쇠 머리라(머리+라) (우두는 소의 머리이다)

그리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일 때는 'ㅣ'가 나타났다.

- 生佛은 사라 거신 부테시니라(부터+ㅣ시니라) (생불은 살아 계신 부처이다)

<보기 2>

- 齒는 ㉠ (치는 이이다)
- 所는 ㉡ (소는 바이다)
- 樓는 ㉢ (누는 다락이다)

	㉠	㉡	㉢
①	니이라	바이라	다락라
②	니라	배라	다락ㅣ라
③	니이라	바라	다락ㅣ라
④	니라	배라	다라기라
⑤	니ㅣ라	바이라	다라기라

1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학 생: 선생님, 다음 두 문장을 보면 모두 ‘가깝다’가 쓰였는데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 우리 집은 학교에서 가깝다.
 (2) 그의 말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

선생님: (1)의 ‘가깝다’는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음”을 뜻하고, (2)의 ‘가깝다’는 “성질이나 특성이 기준이 되는 것과 비슷함”을 뜻한다. 이는 본래 ㉠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니던 것이 ㉡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학 생: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가깝다’는 여러 의미를 지닌 단어로군요.

선생님: 그렇지. 그래서 ‘가깝다’는 다의어란다.

	㉠	㉡
①	물은 <u>낮은</u> 곳으로 흐른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u>낮다</u> .
②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u>크다</u> .	힘든 만큼 기쁨이 <u>큰</u> 법이다.
③	두 팔을 최대한 <u>넓게</u> 벌렸다.	도로 폭이 <u>넓어서</u> 좋다.
④	내 <u>좁은</u> 소견을 말씀드렸다.	마음이 <u>좁아서</u> 는 곤란하다.
⑤	<u>작은</u>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u>작다</u> .

12.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가)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 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나)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① ‘꽃힌[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뭉이[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비웃[비운]’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얹고[안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옹고[옹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13.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홀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ㅁㅅㅁ 여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 [중세 국어] 自然히 ㅁㅅㅁ 여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중세 국어] 번개 구르믄 흐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홀어

[중세 국어] 散心은 흐튼 ㅁㅅㅁ라
[현대 국어] 산심은 홀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 ㉠와 ㉡를 보니, _____ (가)

- ①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④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⑤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눅다’의 어근 ‘눅-’에 접미사 ‘-이-’가 붙어 새로운 어간 ‘눅이-’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눅이다’의 어간 ‘눅이-’는 ‘눅다’의 어간 ‘눅-’과 구별된다. 둘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먹이’나 ‘넓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먹이’와 ‘넓이’의 ‘먹-’과 ‘넓-’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셋째로, ㉠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사 ‘익다’와 ‘떡다’의 어근에 각각 접미사 ‘-히-’와 ‘-이-’가 붙어 형성된 ‘익히다’와 ‘떡이다’는 ‘고기를 익히다.’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에서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넷째로, ㉡ 접미사는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다’의 어근 ‘안-’에 접미사 ‘-기-’가 붙어 형성된 ‘안기다’는 ‘아기가 엄마한테 안기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눅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접미사 ‘-히-’는 ‘읽다’의 어근 ‘읽-’에 붙어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어근 ‘살-’에는 접미사 ‘-리-’가 붙어 ‘살리다’가 형성된다. 또한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 들 수 없다. 가령, 어근 ‘읽-’과 접미사 ‘-히-’ 사이에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든 ‘읽시히-’와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 ㉡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 ㉢ 마을 앞 공터를 높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 ㉣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차를 꿰었다.
-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 ① ㉠에서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비다’의 어간과 같다.
- ②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이다.
- ③ ㉢에서 ‘높이’는 명사이므로 ‘높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 ④ ㉣에서 ‘꿰었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 ⑤ ㉤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15.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형이 동생을 울렸다.
 ㉡: 그는 지구본을 돌렸다.
- ②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
- ③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 ④ [㉠: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졌다.
- ⑤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가독성을 위해 여백으로 처리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나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고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있다.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위의 ‘민물고기’에서는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한 단어에 합성과 파생 과정이 모두 있는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살얼음’은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만약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면 ‘살얼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분석이 된다. 둘째,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하는 점이다. ‘벽돌집’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벽돌’과 ‘집’이 분석된다. 이를 ‘벽’과 ‘돌집’으로 나누면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긴 문장도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해 그 구조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나므로,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는 주어와 서술어가 된다. 그런데 서술어는 홀로 나오기도 하지만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과 결합하여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내 동생은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첫 분석 층위에서 주어 ‘내 동생은’과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로 그 직접 구성 요소가 분석된다. 또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한 층위 아래에서 ‘엄마의 칭찬을’과 ‘많이 받았다’로 나뉜다. 또한 ‘내 동생’의 직접 구성 요소는 ‘내’와 ‘동생’인데, 이처럼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인접하면 그 두 요소는 바로 위 층위의 말을 이루는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에서 ‘언니가’는 관형사절 속에 포함된 주어일 뿐이며 문장 전체의 주어, 즉 가장 위 층위에 있는 직접 구성 요소는 ‘언니가 찾던 책이’임을 알 수 있다.

11.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학 생: ‘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민-’은 ‘민물고기’의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 이제 왜 ‘민물고기’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직접 구성 요소 분석에 대해 잘 이해했구나. 그럼 아래의 단어들도 분석해 보자.

㉠ 나들이웃	㉡ 눈웃음	㉢ 드높이다
㉣ 집집이	㉤ 놀이터	

- ①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합성어이다.
- ②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 ③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 ④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 ⑤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12.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의 ㉠~㉡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 지회는 목소리가 곱다.
- ㉡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 ㉢ 동수가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
- ㉣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 ① ㉠은 ‘지회는’과 ‘목소리가 곱다’로 분석되겠군.
- ② ㉡은 ‘소포가’와 ‘도착했다고 들었다’로 분석되겠군.
- ③ ㉢은 ‘동수가’와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로 분석되겠군.
- ④ ㉣은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와 ‘밝혀졌다’로 분석되겠군.
- ⑤ ㉤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과 ‘명언이다’로 분석되겠군.

13. <보기>의 ㉠~㉡에 쓰인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활용된다. 어미는 ㉠ 선어말 어미와 ㉡ 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다시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용언의 활용형에서 선어말 어미는 없는 경우가 있어도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 민수가 그 나무를 심었구나!
- ㉡ 저기서 청소하는 아이가 내 동생이야.
- ㉢ 그 친구가 설마 그 음식을 다 먹었겠니?
- ㉣ 그가 나에게 권한 책은 이미 읽은 책이다.
- ㉤ 주말에 바람은 불겠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 ①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로 쓰였고,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가 ㉡로 쓰였다.
- ② ㉡에는 ㉠은 없고 동사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로 쓰였다.
- ③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의문형 종결 어미 ‘-니’가 ㉡로 쓰였다.
- ④ ㉣에는 ㉠은 없고 동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은’이 ㉡로 쓰였다.
- ⑤ ㉤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이 ㉡로 쓰였다.

가독성을 위해 여백으로 처리

[11~12] 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1>

A: '(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ㅂ'으로 같잖아? 그런데 '좁다'는 '좁고', '좁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B: 그러고 보니 '(신을) 벗다'와 '(노를) 젓다'도 어간의 끝이 'ㅅ'으로 같은데, '벗다'는 '벗어'로 활용하고 '젓다'는 '저어'로 활용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A: 그렇구나.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자료>

현대 국어 '좁다'와 '돕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좁다'는 '좁고', '조바'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바'처럼 어간이 '도-'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현대 국어 '벗다'와 '젓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버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젓-'으로 나타난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돕고'의 'ㅂ'과 '젓고'의 'ㅅ'은 각각 '빙'이 'ㅂ'으로 교체되고 '△'이 'ㅅ'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도바'와 '저서'는 '빙'과 '△'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빙', '△'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바'도 '도와', '더버'도 '더워'에서와 같이 'ㅂ' 또는 'ㅅ' 앞에서는 반모음 [ɔ̃/ʏ[w]]로 바뀌었고, '도봉'도 '도오'시니, '셔볼'도 '셔울'에서와 같이 'ㅇ' 또는 'ㅅ'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ㅇ' 또는 'ㅅ'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 16세기 중엽에 '아스'도 '아으', '저서'도 '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 '셔울', '도오'시니, '아으'는 18~19세기를 거쳐 '셔울', '도우'시니, '아우'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화 2>

A: 자료를 보니 '빙', '△'이 사라지면서 '도바'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B: 그럼 '(고기를) 굽다'가 '구워'로 활용하고, '(밥을) 짓다'가 '지어'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거겠네!

A: 맞아.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굽다'하고 '짓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된 거야.

11.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바'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의 소실로 어간의 끝 'ㅅ'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 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젓고'와 현대 국어의 '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12.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은/-은	-게	-아/-어	-은/-은
① (마음을) 굽다	굽게	고바	고븐	굽게	고와	고은
② (신을) 굶다	긋게	그서	그슨	긋게	그서	그슨
③ (자리에) 눕다	눅게	누버	누븐	눅게	누워	누은
④ (머리를) 빗다	빗게	비서	비슨	빗게	비서	비슨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븐	잡게	자바	자븐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맑+네 → [망네]
㉡ 낮+일 → [난닐]
㉢ 꽃+말 → [꼐말]
㉣ 굽+고 → [글꼬]

- ① ㉠: '맑+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 '물+약 → [물랏]'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 ㉢: '팔+죽 → [판죽]'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 '읽+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다)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고 [A]~[C]는 안긴 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보면 (가)의 '동생', (나)의 '책', (다)의 '도서관'은 완결된 문장 [A], [B], [C]에서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각각 ㉠ 주어, ㉡ 목적어, ㉢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가)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

[A] 동생이 어제 책만 읽었다.

(나) 아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이다.

[B] 아이가 책을 읽었다.

(다) 형이 책을 읽은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다.

[C] 형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 ① ㉠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
- ② ㉠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 ③ ㉡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
- ④ ㉡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
- ⑤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1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다.

- 통사적 합성어: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
- ㉠ 비통사적 합성어: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합성어

- 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 ② 서로 몰라볼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다.
- ③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지난달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신감이 생겼다.
- ⑤ 망치질을 자주 하다 보니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였다.

2017-2020학년도 평가원 문법 답안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 ⑤ 12. ② 13. ④ 14. ③ 15. 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 ④ 12. ① 13. ③ 14. ② 15. ①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 ① 12. ① 13. ② 14. ② 15. ①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 ② 12. ① 13. ③ 14. ⑤ 15. ①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 ③ 12. ① 13. ② 14. ④ 15. 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 ③ 12. ① 13. ① 14. ② 15. ④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 ③ 12. ② 13. ⑤ 14. ③ 15. 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 ① 12. ⑤ 13. ③ 14. ③ 15. ④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 ⑤ 12. ④ 13. ① 14. ③ 15. ④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 ② 12. ② 13. ③ 14. ① 15. 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